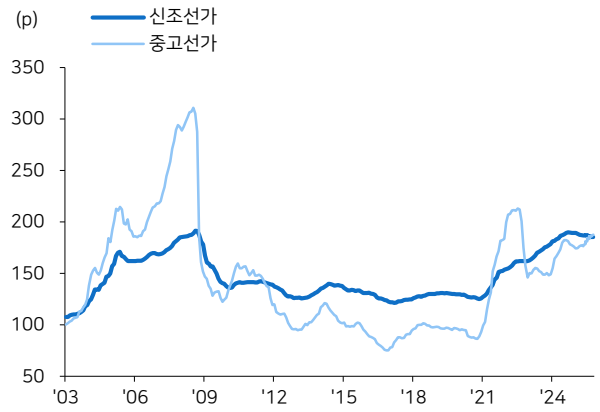
2026. 2. 6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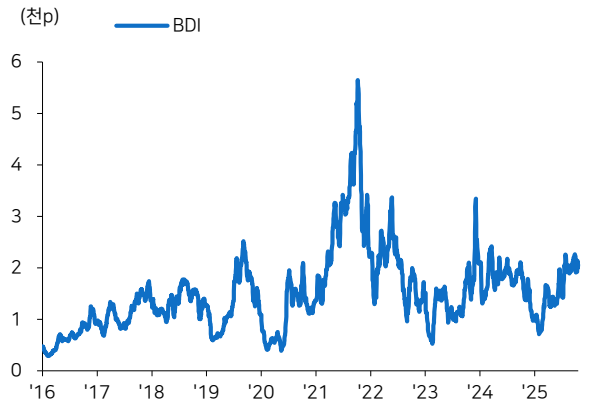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5.3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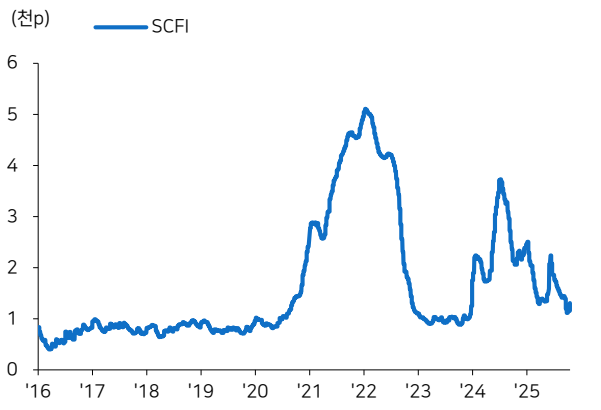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4.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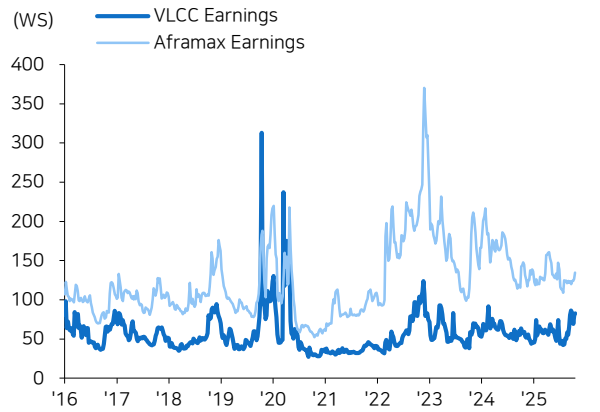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55.0p (-7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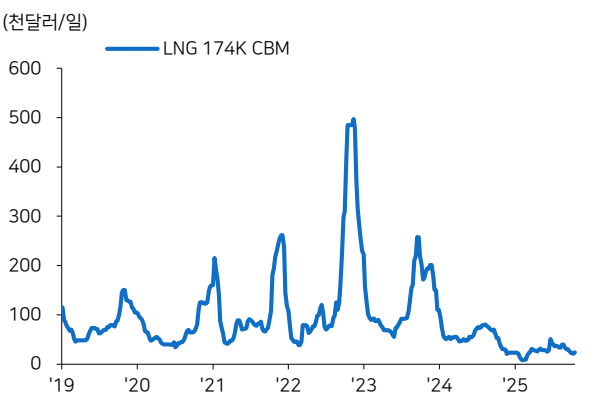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10.4p (+149.9p WoW)



VLCC Spot Rate 82.5WS (+2.1p WoW)



LNG Spot 운임 24.0천달러 (+3.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YK and Ocean Yield fix huge LNG carrier newbuildings to US giant Cheniere (TradeWinds) https://buly.kr/7x7u94R

일본 NYK Line과 Ocean Yield가 200,000cbm급 LNG 운반선 4척에 대해 미국 Cheniere Energy와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선박은 한국 HD현대중공업에서 2028년부터 인도될 예정으로 전해짐. 선박에는 X-DF2.1 iCER 이중연료 저속 디젤엔진과 고성능 멤브레인형 화물창이 적용돼 연료 효율성과 LNG 운송 경제성이 강화됐다고 알려짐. HD한국조선해양은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확보했으며 이번 거래로 Ocean Yield의 EBITDA 백로그는 약 6억 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US official: IMO should kill 'Net Zombie Framework' (TradeWinds) https://buly.kr/2JpekwD

미국 행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를 탈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보류 중인 Net-Zero Framework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됨. 교통 담당 차관보인 Marco Sylvester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IMO의 기술 중심 역할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글로벌 탈탄소 규제는 명시적 승인 절차와 국가 책임성을 전제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전해짐. 그리스 · 몰타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선주들은 Net-Zero Framework 좌절에 동조했으나, 해운업 탈탄소 노력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고 알려짐.

후판 가격 줄다리기 장기화...'철강 vs 조선 이해충돌' (뉴시스) https://buly.kr/CB65gDy

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이 반기 관행을 벗어나 1년 단위로 장기화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HD한국조선해양 · 한화오션 · 삼성중공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물량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알려짐. 철강업계는 현재 가격이 손실 구조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조선업계는 중국산 저가 후판 유입과 원자재 가격 흐름을 근거로 인상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협상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짐. 협상이 인상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이미 납품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돼 철강업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도됨.

경쟁입찰로 바뀐 KDDX 수주전...HD 현대·한화 '채점표 싸움' (뉴시스) https://buly.kr/BeLorSV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전환되며 방위사업청 입찰 · 평가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됨. 방위사업청은 기술 평가 변별력 강화, AI · SW 중심 체계 평가, 국산화 · 중소기업 참여 정량화, 보안 · 안전 · 상생 등 정책가치 반영을 포함한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며 연내 제도 개정이 목표로 전해짐. 이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기술력, 보안 이력, 상생 지표를 둘러싼 점수 경쟁에 본격 돌입했으며, KDDX 평가 구조가 향후 대형 방산 사업 전반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짐.

Mercuria nets 145 cargoes over 20 years from new US LNG project (TradeWinds) https://buly.kr/EzkDNmR

Mercuria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Cameron에 위치한 Commonwealth LNG 신규 프로젝트에서 20년간 연간 백만톤의 LNG를 인수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이 물량은 표준 174,000cbm급 LNG 운반선 기준으로 약 145회 운송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당 계약은 FID 이후 발효되는 구조로 알려짐. Commonwealth LNG는 Glencore, JERA, Petronas, EQT Corp와의 계약을 포함해 허가된 연간 950만톤 생산능력 중 700만톤에 대한 장기 오프테이크를 확보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사업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보도됨.

Gas prospects put Andaman basin on supermajors' radar (Upstream) https://buly.kr/9iHU4AL

안다만 분지에서 다수의 대형 가스 발견이 확인되며 인도 · 인도네시아 · 태국을 중심으로 탐사 활동이 본격 확대되고 있고, 인도의 가스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이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됨. 인도 국영 OIL과 ONGC의 초심해 · 극초심해 시추 성과와 함께 TotalEnergies, BP, Mubadala 등 글로벌 메이저들이 기술 협력 · 광구 참여에 나서며, 일부 프로젝트는 2026년 FID와 2028년 생산 개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짐. 다만 상업적 개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프라 부재, 지질 데이터 부족, 재정 · 가스 가격 조건의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으로 지적되며, 향후 정책 명확화 여부가 투자 속도를 좌우할 전망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